오월 그 날… '화려한 휴가' 준비는 끝났다

'화려한 휴가' 야외 촬영 마쳐

5·18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가 최근 광주에서 마지막 야외 촬영을 마쳤다. 순제작비 90억원이 투입된 대작인 '화려한 휴가'는 '꽃잎' 등과 달리 광주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본격적인 상업영화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 작품이다.

기자회견장에서 만난 감독과 배우들 역시 "시작도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지만 영화 촬영이 끝나도 부담감은 갖게 될 것 같다"는 안성기의 말처럼 영화가 주는 무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모습은 아니었다. 참가자들은 이 영화가 5·18을 다룬 영화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며 기자회견에 임했다.

내년 4월 개봉 예정인 '화려한 휴가'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배우와 감독. 김지훈 감독, 안성기, 이요원, 김상경, 박철민, 윤형광, 박원상(왼쪽부터). 이중 박철민과 윤형관은 광주와 목포 출신으로 5·18을 직접 경험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주인공 민우와 고등학생 동생으로 출연하는 김상경(사진 왼쪽)과 이준기.

-광주 출신 감독이나 배우들은 '광주' 문제를 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한다. 대구 출신 감독으로 광주 문제를 다루는 데 부담은 없었나.

▲김지훈 감독=나 역시 어릴적에는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알고 있었다. 대학에 들어가서 비디오 자료 등을 보며 진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 부끄러웠다. 영화감독이 된 후 꼭 광주문제를 영화로 만들고 싶었다. 영화관에 들어온지 10년이 지났는데 혹시 누가 찍을까봐 늘 조마조마했었다.

광주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게 처음이라 부담도 있지만 광주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힘이 덜 들어가게 찍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 내가 정말 운이 좋아 선택됐다고 생각한다. 광주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자기 최면도 많이 걸었다.

-처음 캐스팅 제의를 받았을 때 실제 일어났던 현재진행형인 사건이라는 점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나.

▲김상경=내가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은 전적으로 '시나리오'에 달려 있다. 시나리오를 읽을 때 한자리에서 두번 이상 읽을 것, 눈물이 흐르는 작품일 것, 이 두가지가 선택 기준이다. '화려한 휴가'가 꼭 그랬다. 연속으로 두번 읽었고 읽는 내내 눈물이 흐르더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 더 끌렸다. 정치색 짙은 조선대학교 4학년 대학생역이었다면 이 영화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정치색이 없는 게 이 영화의 장점이다. 5·18은 대학 때 처음 접했다. 영화를 선택할 당시 많이 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5·18묘역에 참배가고 당시 사진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다른 배우들보다 연장자로서 이 영화에 참여한 느낌이 남다를 것 같은데.

▲안성기=1980년에는 이장호 감독의 영화 '바람불어 좋은 날'을 찍고 있었다. 사회성 짙은 작품이라 검열이 고민이었고 개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았다. 영화는 그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가 확인시켜주는 것 같다. 광주 문제는 조금 늦게 다뤄진 감도 없지 않다. '화려한 휴가'는 나에게 큰 무게로 다가오는 영화다. 5·18 정신이 잊혀져서는 안될 것이다.

-광주에서 일어난 '10일'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배우들은 극중에서 사투리를 쓰는지.

▲김상경=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는 것도 내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중 하나였다. 아무리 경상도·전라도 사투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도 그 지방 사람들에게 어색하게 들리기 마련이다. 또 사투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주인공의 객관화가 더 잘 된 것 같다.

이 영화는 5·18을 다룬 영화기도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라 생각하며 촬영했다. 평범한 소시민의 진실이 왜곡된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구도청 등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곳에서도 촬영했는데 상무관에서 관을 놓고 찍을 땐 실제 자료 화면으로 봤던 게 떠 올라 울컥했다. 또 유족회 어머니가 찾아와 "잘 찍어달라"며 눈물을 보이실 때 책임감을 느끼기도 했다. 5·18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복권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어린 나이(80년생)에 이 영화가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 5월 당시 간호사, 직업여성, 평범한 아주머니 등 '여성'들의 역할이 컸었다. 영화를 촬영하며 가장 많이 동화된 장면은 무엇이었나.

▲이요원=TV에서 가끔 본 기억이 있지만 솔직히 관심이 없었다. 어둡다는 생각도 있었고. '광주'를 다룬 작품이라고 해서 조금 시큰둥했는데 시나리오가 술술 익히더라. 찍으면서 오히려 많이 동화된 것 같다. 가두 방송하는 장면을 찍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해서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진짜 가슴 아팠다. 또 공수부대에 쫓기는 장면을 찍으면서 이건 단순한 액션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당한 여성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끔찍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지훈 "대구출신이라 객관적일 수 있어"

김상경 "정치색 없는 게 이 영화의 장점"

안성기 "5·18 정신 잊혀져서는 안될 것"

이요원 "공수부대에 쫓기는 장면 끔찍"

주목! 이 영화

'세번째 시선'

6명의 감독들이 '인권'을 위해 뭉쳤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지난 2002년부터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기획하고 있는 인권영화프로젝트 '세번째 시선'이 23일 광주극장에서 개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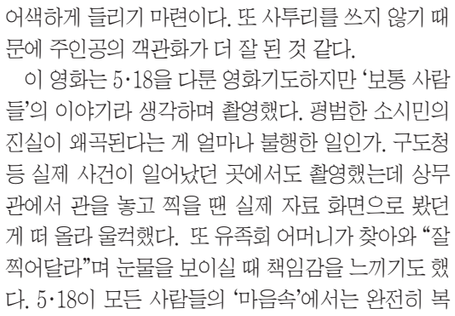
6인 감독의 인권영화 프로젝트

'말아톤'의 정윤철 감독, '원더풀 데이'의 김현필 감독, '마이제너레이션'의 노동석 감독, '버스, 정류장'의 이미연 감독, '뇌절개술'의 김곡·김선 감독, '선택'의 홍기선 감독이 만난 '세번째 시선'은 106분이라는 러닝타임동안 우리 사회의 '튀는 사람들'을 조명한다.

'잠수왕 무하마드' '소녀가 사라졌다' 등 6개의 이야기가 옴니버스 식으로 구성된 이 영화는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가정내 성차별, 청소년 동성애 문제 등 한층 세밀하고 확대된 우리 시대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권이라는 화두가 던져주는 무거움보다는 생활 속 이야기들을 통해 경쾌하게 전한다.

노개런티로 참여한 정진영, 김태우, 전혜진 등 정상급 배우들의 연기도 돋보인다.12세 관람가.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말아톤' 정윤철 감독의 '잠수왕 무하마드'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디파티드 홍콩 느와르 '무간도'를 할리우드 스타일로 리메이크 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멧 데이먼 등 화려한 캐스팅이 돋보인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광주·첨단), 하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플러쉬 하수구에 떨어진 햄스터의 모험을 그린 애니메이션으로 케이트 윈슬렛, 휴 잭맨 등 인기 배우들이 더빙을 담당해 눈길을 끌었다. 우리말 더빙은 투사부일체 출연진이 맡았다. 전체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광주·첨단), 하미,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헐리우드
해바라기 가진 것은 주먹밖에 없는 남자에게 따뜻하게 다가온 모녀. 그리고 그 희망을 지키기 위한 안타까운 결투가 펼쳐진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헐리우드
스텝업 미래가 보이지 않는 스트리트 댄서와 엘리트 예술학교에 다니는 발레리나 지망생의 사랑과 청춘을 그렸다.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롯데,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헐리우드
삼거리극장 음악과 춤이 결합된 뮤지컬 판타지. 낮에는 삼거리 극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밤이 되면 유령의 모습으로 춤과 노래를 한다. 15세 관람가.	롯데(첨단),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 하미, 목포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헐리우드
애정 결핍이 두남자에게 미치는 영향 외로움에 몸서리 치는 못말리는 부자의 애정 결핍 탈출기가 그려진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서(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헐리우드
누가 그녀와 잤을까 고등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요절복통 섹시 코미디로 학교에 떠도는 은밀한 소문의 주인공을 추적한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헐리우드
그루지2 전 세계를 공포로 떨게 했던 영화 '그루지'의 속편이다. 저주받은 집에서 나타나는 오싹한 귀신의 모습이 2편에서도 그대로 재연된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CGV(광주·첨단), 하미, 목포 롯데,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헐리우드
어느 멋진 순간 리들리 스콧 감독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배경으로 냉정한 영국 남자와 순수한 프랑스 여성이 밀고 당기는 사랑 게임을 이야기한다. 15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롯데,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사랑따윈 필요 없어 소녀에서 여인으로 변신한 배우 문근영의 성숙한 연기를 만날 수 있다.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두 사람의 거짓과 진실을 오가는 사랑이 펼쳐진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순천 롯데, 순천 씨너스, 여수 씨너스